

남·북한 가정의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alization of Household Work in North-Korea and South-Korea¹⁾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교 수 문 숙 재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조성은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Professor : Sook Jae Moon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Doctoral Course : Seong Eun Cho

〈목 차〉

I. 문제제기

IV. 요약 및 결론

II. 이론적 배경

참고문헌

III. 남북의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domesticity in South-Korea and North-Korea to prepare for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Korea. To compare the family life in South-Korea and North-Korea, this study adjusts the focus of the socialization of household work. There is a great difference in the ideology between the two political systems.

The difference in the ideology makes a difference to decide on a policy on the household work. It comes out of the socialization method of household work. In North-Korea, the collectivization of household work get a lot of accomplished. The other hand, the commercialism of household work get a lot of accomplished in South-Korea. This is made differences in the domesticity between South-Korea and North-Korea.

1) 본 연구는 1994년 학술진흥재단 중점대학 대학부설연구소 지원 과제임

I. 문제제기

한 신문기사에 의하면 분단 50년은 남북한 간의 정치, 경제는 물론 한 민족의 언어마저 바뀌게 하고 있다고 한다. 일 예로 손자는 두벌자식, 계모는 후어머니, 사실혼 부부는 뜨게 부부등 남북은 이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질화의 극복은 통일을 바라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한편 남북의 통일은 이제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여기 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1996년 1월 24일자 보스턴 헤럴드지의 논평에서는 북한이 수년내 스스로 자멸할 것이라는 기사가 실렸었다. 더욱이 1995년 북한의 수해로 인한 심각한 식량난과 이로 인한 주민의 이탈 및 계속되는 북한 인사의 남한으로의 망명 및 탈출의 성공은 이런 기사의 전조처럼도 여겨진다. 이제 우리에게 남북 통일은 그저 입속으로만 되뇌이던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이 되었다.

그러나 막상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는 통일후에 맞을 혼란을 예상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즉 통일된 땅에서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 함께 어울려 사는 일에 대한 준비가 없다. 따라서 무조건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과 통독을 예로 들면서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모두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통일후 생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서로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맞추어가기 위한 준비이다.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은 우선 남북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탐색하기 위한 남북한 가정생활의 파악이라고 본다.

그러나 남북은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체제 속에서 상이한 가정생활 운영 방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남북의 가정생활을 살펴보고자 할 때 가정생활의 전반적인 운영만을 살펴기 보다 가정생활을 달라지게 했던 이데올로기나 체제운영방식의 차이에 따라 나타났게 된 가정생활 운영방식을 비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차이점을 비교하기 위해 각 체제의 가사노동 사회화 동기와 방식을 통해 가정생활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때 가사노동

의 사회화는 체제에 따라 그 필요성과 운영방식의 차이가 뚜렷하여 개별가정의 운영방식을 살피기에 가장 적합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북한에 대한 문제 의식차원을 넘어서 사람들의 실제 가정생활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융화방향을 모색해보기 위해 가사노동 수행상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 또한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북한 관련 자료의 제한성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는 어려우나 가사노동 수행방식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남북생활의 차이를 보다 분명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까지 귀순한 사람들의 증언이나 몇몇 국내의 학자들의 연구 자료를 통해 북한의 가정생활을 짐작해보는 문헌고찰을 통한 연구만이 가능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그간의 연구에 비해 가사노동 수행방식의 차이에 대한 남북의 유사점 내지 차이점을 종합적으로 검출해냄으로써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실질적인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이데올로기와 가사노동의 사회화

사회주의는 맑스-엔겔스의 이론을 토대로 한다. 맑스-엔겔스가 구상한 사회는 사유재산의 철폐로 무계급, 무억압, 무착취의 평등구조를 달성한 해방사회이다. 또한 사회주의적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계획적 동원에 의존하는 억압적·전체주의적 방법-프롤레타리아 독재-이 불가피하게 선택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사회전면적인 평등구조의 실현을 통해 타인에게 종속되거나 억압되지 않게 하는 것은 경제적 계급의 철폐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즉 경제적 계급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성적·인종적·민족적 불평등도 같이 해결되어야만 하였다.

따라서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우선 해결해야 했던 것은 성적 불평등이었다(윤미량, 1991). 성적 억압과 자본주의가 긴밀한 연관을 지닌다는 맑스-엔겔스의 지적이 아니라 해도 전면적 평등구조의 실현에 여성

을 배제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가사노동을 자본주의가 여성을 가정에 묶어두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여성해방을 위해 사라져야 할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북한 역시 3대 기술 혁명(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통해 전 여성의 노동 계급화와 착취, 압박에서 해방된 근로자로서 남녀평등의 실현을 추구해 왔다. 그 결과 북한 여성이 얼마나 철저히 노동조직과 노동현장에 동원되느냐가 여성평등과 사회화의 척도가 되었다. 이러한 북한 사회의 여성정책에는 ‘여성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을 가정에서 해방시켜 산업사회에 돌려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개혁의 기본 노선이 숨어 있다. 이는 생산수단의 사회화, 집단화를 이룸으로써 생활의 중심인 가족주의를 타파하고 그 자리에 공산주의적 집단노동 가족을 대치하려는 김일성체제의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은 또다른 정부의 계획을 실행하게 된다. 즉 여성이 담당하던 가사노동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시킬 필요에 따라 북한의 가사노동 사회화가 추진된다. 이는 사회주의 건립을 위한 여성 노동력의 동원을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에서 여성은 가사노동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고, 여성의 노동으로 남아있다.

한편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남한은 사유재산의 인정 및 부의 축재가 가능한 사회이다. 그리고 가사노동을 가정의 기본생활과 가족의 안녕을 보장하는 노동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사회이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가치는 인정하되 가능한한 가사노동에 투입되는 시간과 에너지는 줄이고 산출을 높이려는 경향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남한에서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가사노동에 투입되는 시간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차원의 계획적인 시행이라기 보다는 자본의 여유로 인해 누릴 수 있게된 혜택 또는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여성의 역할변화에 따른 요구로 이해된다.

결국 북한에서는 가사노동을 가능한한 사라지게 해야 할 노동으로 남한에서는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

높은 노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두 체제 모두 동기는 다를지라도 가사노동의 경감을 위해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진행시켜 왔다. 즉 북한에서는 자본주의가 여성 억압의 기제로 사용하는 가사노동을 사라지게 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여성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해, 그리고 남한에서는 가사노동의 산출을 높이고 가사노동에 투입되는 시간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진행시켜 왔다.

이처럼 이데올로기의 차이는 가사노동 사회화의 필요성과 진행방식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러한 가사노동 사회화방식의 차이는 남북 가정 생활에서 가사노동 수행방식상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2. 가사노동의 사회화

가사노동이란 일상생활에서 가정의 기능을 유지해주는 활동들로서 가사노동의 대체가능성 때문에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나타난다. 김혜경(1985)은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생산방식이 사적이지 아니라 사회적 생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가사노동의 사회적 생산화’라고도 부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제까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주로 자본에 의한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이루어져 왔으나, 60년대 이후 선진 자본주의 사회의 경우, 국가에 의해 복지적 차원에서 수행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Engel도 이러한 관점에서 가사노동이 자본주의 생산양식하에서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점차 변동되어 왔으며 사적인 가사노동이 공적인 산업으로 사회화 되었다고 하였다(문숙재·채옥희, 1986).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크게 세가지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첫번째는 자본주의적 사기업에 의해 소비비용이나 유통비용으로서 또는 사적수단으로써 개별 가족에게 사적으로 공급되어지는 형태이고, 두번째는 복수의 개별 가족이 분업, 협업하여 상호적으로 개별가족의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사회적 공공적 소비수단, 또는 서비스로서 공공이 공급하는 것이다(정지영, 1989에서 재인용). 이는 가정관리의 기본 기능의 일부인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생산수단 및 서비스의 제공을 사적·개인적 가

정이 아닌 사회적인 것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때 자본주의의 사회화는 가사노동을 자본주의적 사기업에 의해 개별 가족에게 사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영리적 사회화 이므로 '가사노동의 시장화'라고도 표현된다. 그러나 Egner(1952)에 의하면 가정내의 생산과정이 끊임없이 외적인 영역으로(정지영, 1990), 즉 영리적인 것 뿐만 아니라 공적인 부문으로 전이되어 가는 과정이라하여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보다 광범위한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때는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유도되거나 제공되는 가사노동 또한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통합된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사회화란 가정내의 생산과정이 가정밖의 영역인 사회로 이양되어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화나 용역을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전문가에게 집단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사노동 사회화의 유형은 노동제공자에 의한 분류와 노동종류에 의한 분류가 가능하다. 우선 노동제공자에 의한 분류는 그 노동을 누가 대신하는가에 따라 첫째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는 영리적인 사회화, 둘째, 동일한 목적을 갖는 지역의 사람들이 경제력, 시간, 노력등의 가족 자원 절약을 도모하는 집단화·공동화 이며, 셋째,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사회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회적·공공적 사회화이다(문숙재, 1990).

한편 가사노동의 종류에 의한 분류는 식사, 피복, 주거, 보육·교육, 보호·간호, 가정관리, 교제에 관한 일에 따른 분류이다(문숙재, 1990).

Ⅲ. 남북의 가사노동 사회화 실태

북한에서는 1970년 11월 노동당 5차 대회에서 3대 기술혁명의 하나로써 '가정으로부터의 해방'이 제기되었다. 3대 혁명은 인민경제부문 기술혁신운동으로서 중노동과 경노동의 차이, 농업노동과 공업노동의 차이를 줄이고,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여성들의 부업일을 덜어주기 위하여 식료가공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동시에 현대적 가정용품과 부업세간들을

공급 생산하는 것을 중요과업으로 추진하였다(이경혜, 1991, 한국여성개발원, 1992에서 재인용). 이는 1972년의 사회주의 헌법 제62조에서 "국가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여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면서 가정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북한의 가사노동 사회화는 정책적으로 강하게 지원이 된다.

한편 남한에서는 가정과 사회, 주부역할의 변화로 인해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즉 가정의 소득증가로 가사노동을 경감시키는 기계화 설비나 용역을 구입하기 위한 소비성향이 증가하였고 이는 다시 소비재나 내구재 산업, 용역부분 산업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또한 취업여성의 증가로 인한 가사노동 시간 단축 필요성의 증대, 핵가족화, 인구의 고령화, 독신생활의 증가로 가사노동 경감욕구가 증대하여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급속히 진전시키게 된다. 이에 맞추어 사회에서는 기술의 진보로 인한 가정용 설비, 기구의 대량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의 인스턴트 식품, 반조리 식품, 냉동식품등 가공식품 보급의 증가와 외식산업이 발달하여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가능케 하고 있다(문숙재, 1990).

결국 북한에서는 여성의 노동력 동원을 위해 가사노동 사회화를 정책적으로 유도하였다면, 남한에서는 가치관의 변화와 가정의 변화, 여성의 취업으로 인해 나타나게된 가사노동 경감의 요구와 기업의 신상품 개발 및 기술의 발달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사노동의 사회화 방식에서는 노동제공자의 차이가 우선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므로 노동제공자에 의한 가사노동 사회화 분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보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기 위해 다시 가사노동의 종류에 따른 차이를 비교해본다

1. 가사노동 제공자에 따른 사회화 실태

1) 가사노동의 영리적 사회화

가사노동의 사회화에서 영리적인 사회화란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인

남한에서 가장 대표적인 가사노동의 사회화 방식이다. 즉 자본을 주고 대신 시장에서 가사노동을 대체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게 되므로 가사노동의 시장화 또는 산업화라고도 일컬어진다. 예를 들어 세탁기, 식기세척기, 청소기, 가스레인지, 냉장고등 가정생활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어줄 기기의 구입이나, 가공식품이나 반가공식품등의 재화 구입이 이에 속한다. 또한 세탁소, 사설유치원이나 놀이방, 레스토랑등 외식사업체의 이용등 용역의 구입도 포함된다(문숙재, 1990).

한편 북한에서는 이러한 영리적인 사회화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즉 국가의 계획된 경제 통제하에 놓여있고 사유재산을 거의 인정하지 않은 채 필요한 물자는 국가에 의해 배급되거나 스스로 조달하고 있으므로 자본주의인 남한처럼 자본과 시장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북한에서의 모든 주민 공급은 총체적인 성격을 띠는 공급체제로 텔레비전, 쌀, 냉장고, 신발에 이르는 모든 상품이 자유판매되지 못하고 있다(안드레이 란코프, 1991). 그리고 북한에서도 냉동고(주: 냉장고)를 생산한다고 선전하지만 일부 간부급만이 공급받고 있을 뿐 일반 주민들은 구경도 못한 상태이므로(강광식, 1987), 가사노동의 시장화를 위한 전제조건인 시장의 형성과 재화의 공급이라는 측면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영리적인 사회화란 북한 체제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가사노동 수행방식이 된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냉장고, 세탁기는 물론, 전기밥솥/밥통,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전자동세탁기, 진공청소기등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다(조성은, 1991). 또한 식기건조기, 세탁건조기, 자동식기세척기등의 시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북한과는 다른 물자의 풍부함과 혜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제는 그런 기기의 디자인과 색상, 기능에 따른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북한과 남한의 두드러진 가정생활의 차이가 되며 통일후 문화적인 격차와 이질감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냉장고는 구경만 해봤고 세탁기는 말로만 들었던 북한 대부분의 주민들에게는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은 필수품처럼 알고 식기건조기, 빨래건조

기, 진공청소기, 식기세척기등을 사용하는 남한의 가정생활이 낯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 가사노동의 집단화·공동화

가사노동의 사회화중 집단화·공동화란 동일한 목적을 갖는 지역 사람들의 경제력, 시간, 노력등의 가족 자원 절약을 도모하는 가사노동 사회화 유형이다. 이것은 호혜적 서어비스에 의한 대체로서 일 예로 공동보육, 공동취사, 공동구입 및 생활협동조합등이 있다. 이것들은 동일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써 1인 부담을 적게 할 뿐 아니라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는 큰 효과를 갖지만, 각 가정의 가치관이나 참가의식이 다르므로 이 공동화 형태는 실시될 수 있는 분야가 한정적이거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없는 면을 가지고 있다(문숙재·채옥희, 1990).

그러나 영리적 사회화가 북한에 비해 남한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사노동 수행방식이라면, 이 집단화·공동화에 의한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남한에 비해 북한에서 더 많이 추진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사유재산의 철폐 및 정부의 계획적 동원에 의존하는 전체주의적 방법을 통해 가사노동의 집단화·공동화가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남한처럼 일일이 개인의 선호와 가치관을 존중한다기 보다 주민 통제와 감시를 위한 공동생활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주의 건설이 급속도로 진척되어 감에 따라 3-5가정이 모여 있는 공동주거가 자리잡게 되었고 이것은 변소, 수도 마당등을 공동으로 관리 사용할 필요성을 낳았다. 1987년 월남한 최봉례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조직생활을 통해 인민반에서 지시하면 아침 4시, 5시 사이면 나와서 마당을 쓸거나 큰길을 닦는 일을 했고, 노력동원이라는 것이 있어 세대별로 맡겨지면 집안 사람이 모두 나가하고, 인민반별로 맡겨지면 한 사람씩 나가서 대개 막돌 줍기, 담벽돌쌓기 등의 일을 하며 공동수도, 공동 변소 청소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한다(박완서 외, 1991)는 증언에 미루어 가사노동의 집단화·공동화가 주택사정으로 인한 공동 사용 시설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남한에서도 가사노동 사회화 중 집단화·공동화 형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각 가정의 가치관의 차이, 개인주의, 개성 중심의 생활 선호로 인해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지만 같은 직장 동료끼리 한 지역에 3-5가정 정도가 모여 개별적인 공동주거나 집단 주거의 형태를 띠고 사는 가정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경우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아이를 봐주거나, 번갈아 저녁을 준비하고 공동 구입을 통해 필요한 물자를 나누는 소규모의 가사노동 집단화·공동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3) 가사노동의 사회적·공공적 사회화

가사노동 사회화의 세번째 유형인 사회적·공공적 사회화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설비 및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이며 공적 서비스에 의한 대체라고 한다(문숙재·채옥희, 1990, 재인용). 북한에서는 탁아소나 유아원, 양로원이 대표적이며 그외 장공장, 밥공장, 가족식당등을 들 수 있다. 남한에서는 보건소나 정부운영의 유아원 및 유치원, 양로원이 이에 해당된다.

우선 북한에서는 부양해줄 자식이 없거나 연고자가 없는 노인들은 북한 노동법 8장 78조-노동력을 잃어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은 양로원과 양생원에 무료로 수용된다-에 의해 양로원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러나 1987년 월남한 허문화씨의 증언에 의하면 늙어서는 좀 간섭받지 않고 살려고 무연고자도 대부분 양로원 입주를 희망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가내부업반이나 작업반에도 나가질 못할 만큼 늙어버린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아들집에서 손자 손녀나 봐주고, 한가할 때는 공원이나 빈 공터에 앉아 소일하는 것이 대부분이다(서동익, 1991).

그러나 탁아소나 유치원은 이와 다르다. 북한은 여성의 가정일 해방이라는 목적외에 어려서부터 집단주의 정신과 공산주의적 습성을 길러주기 위해 탁아소제도나 유치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생후 30일이 지나면 아이가 보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 보양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의 부담을

넓히는 각종 혜택과 조치가 취해지고 탁아소와 유치원 망은 대대적으로 늘어나 1970년에 이르러서는 1960년에 비하여 탁아소는 수는 약 4.6배, 탁아소 어린이 수는 3.6배로 늘어 났으며, 1991년에는 탁아소, 유치원 6만여개, 수용인원 166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윤미량, 1991).

이때 1일 탁아소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어린이를 맡아 보게 되어 있으나 통상 늦어지는 경우가 많고(이태영, 1981). 탁아소에 어린이를 맡길 때는 반드시 어린이용 질레 10장과 하루 간식비로 북한 화폐 10전을 주어야 하는데 이는 어린이 몫으로 나오는 배급 쌀중에서 주어야 한다. 아기 젖먹이는 시간도 규정되어 있어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씩 젖을 먹이되, 1회마다 젖먹이는 시간은 30분씩이다. 일년 이상된 유아는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씩 30분간씩 젖을 먹이는 데 이는 작업시간규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공산권문제연구소, 1972).

아기의 빨래는 작업중의 어머니가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을 이용해 찾아와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이태영, 1981). 이러한 탁아소나 유치원에 아이를 맡기는 것이 규정상 강제는 아니지만 여성의 노동이 보편화 되어 있는 반면 가정부나 파출부의 도움이 불가능한 북한에서는 탁아소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 이용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한편 식품 및 식사와 관련해서 북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가사노동의 사회적·공공적 사회화로는 장공장, 밥공장, 가족식당이 있다. 북한에서는 1958년 6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지방산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결정]이 채택된 다음 지방식료공장과 중앙식료공장이 건설되는 등 식료품 및 기호품공업은 4.2배로 성장했다. 이처럼 사회주의 건설이 급속도로 진척되어 감에 따라 인민들의 식료품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도시에 다층살림집도 많이 건설되어 집단적으로 사는 세대가 늘어났으며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이 강화되어 직장생활을 하는 여성들도 많아져서 식료품공업을 보다 빨리 발전시킬 필요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간장, 된장, 고추장을 공업적으로 생산 공급하도록 '장공장'을 건설하고 간장, 된장, 고추장

을 가정에서는 담아 먹을 수 없게 하였다. 따라서 콩은 쌀과 같은 주식으로 취급, 전량을 '국가'에서 거둬들인 후 시중 상점에 내보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시도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식료품 공장에서 제조되어 상점으로 공급되는 간장, 된장을 구입해서 먹고 있다. 또한 김치 역시 김치공장에서 담아 정기적으로 배달한다는 어떤 평양 방문자의 증언이 있으므로(외무부, 1982), 그 질이야 어떻든 간에 남한에서의 장류나 김치의 사회화에 비해 높은 사회화율을 나타내게 된다.

또다른 가사노동의 집단화·공동화 방식으로는 가족식당과 밥공장이 있다. 가족식당이란 글자 그대로 가족단위로 식사를 하는 식당을 말하는데 식량배급권을 식당에다 제출하고 아침, 점심, 저녁별 부식비와 기타 수수료를 주어 공동으로 식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기숙사와 같은데 다만 잠은 집에서 자고 식사는 가족식당에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침에는 가족 전부가 일제히 기상하여 식당을 동시에 이용하게 되며 개별적으로 가면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다. 그러나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침과 점심(도시락)만 가족식당에서 하고 저녁 식사는 집에서 별도로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또다른 형태의 밥공장은 시, 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아침과 저녁에 판매하는 밥은 양권 또는 쌀을 가지고 가서 교환하고, 국은 돈으로 계산해서 집으로 가져다 먹는 방식이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그러나 이것은 공장에 와서 밥을 가져다가 집에 와서 그릇에 담으면 그 사이에 다 식어 찬밥이 되고 더욱이 겨울에 그렇게 할 경우는 더 심하여 공장에서 밥을 타다 데워먹을 바에는 집에서 밥을 지어 먹는 것이 도리어 편하므로 다른 집단화·공동화 방식에 비해 잘 활용되지 못하는 방법이다(공산권문제연구, 1972)

그러나 김용규씨의 증언에 따르면(이태영, 1988), 밥공장은 일부 지역에만 보급되어 있으며 평양지역에만은 3개가 있어 이 공장들이 운영될 만큼은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이태영, 1988).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모자보건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을 1991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남한의 보

육제도나 나라에서 장려하고 권장하는 것이라기 보다 기혼여성들의 취업증가로 인해 나타난 양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조기 교육차원의 육구 충족을 위해 생겨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양질의 보육을 보장하려면 높은 수준의 시설 및 종사자 기준으로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사람은 보다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재정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중하층 지역에서는 가능한 낮은 임금으로 아이를 안심하고 맡겨둘 곳이 필요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고 이 경우만이 가사노동의 사회적·공공적 사회화에 해당된다.

그러나 남한은 탁아사업이 국가가 유도하는 정책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곳은 국가가 운영하는 극히 적은 수로 한정되어 있어 아직까지는 저립하고 질 좋은 탁아시설과 위탁시설의 공급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결국 이 유형은 두 체제 모두 정부나 국가 주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북한은 정부가 전적으로 맡아 운영하게 되며, 남한은 영리적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빈곤가정의 지원이나 국민 복지의 향상 측면에서 정부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2. 가사노동의 종류에 따른 사회화 실태

다음은 보다 구체적인 가사노동의 사회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사노동의 종류에 따른 실질적인 비교를 한 내용이다. 각각의 내용은, 식사, 피복, 주거, 보육 및 교육, 보호와 간호, 가정관리, 교제에 관한 일의 대체이다.

1) 식사에 관한 일의 대체

식사에 관한 일의 대체에는 외식, 배달음식, 학교 급식, 사원식당, 자동취사기, 인스턴트 식품, 반조리 식품, 건조식품 등(문숙재·채옥희, 1990) 식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이 포함된다. 남한에서는 이 모든 내용의 사회화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특히 냉장고와 전자레인지의 보급과 신상품의 개발로 더욱 가속도가 붙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간장, 된

장, 고추장 등의 장류와 김치의 사회화만이 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간장, 된장, 고추장등을 가정에서 담아 먹을 수 없게 하고 배급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평양같은 근대화된 도시에서 김치거리를 매 아파트마다 배달한다라는 선전에 따르면(외무부, 1982) 김치 역시 완전히 사회화된 식품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87년 월남한 허문화, 최치선의 증언에 의하면 저녁은 여자가 퇴근 후 집에 와서 준비해서 먹으며 식당이 없어서 사먹는 경우는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음식점을 이용하려면 양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양권과 함께 돈도 내야한다(박완서 외 1991)고 하니 남한에 비해 외식은 상대적으로 사회화가 이용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대신 북한에서는 남한에는 없는 밥공장, 가족식당 등이 이용되고 있다.

2) 피복에 관한 일의 대체

피복에 관한 일의 대체로는 세탁소, 보관 서어비스, 건조기, 세탁기, 기성복, 수선동(문숙재·채옥희, 1990)이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세탁의 기계화는 남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김영숙외, 1991). 이는 전기세탁기의 대중화와 합성세제의 발달 및 섬유와 의류 산업의 발달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직물생산량의 절대적 부족과 여성들의 사회주의 건설 동원으로 작업복 착용시간이 많아서 남한만큼 피복과 관련된 활발한 가사노동 사회화가 일어날 수는 없는 형편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1년에 두번씩 5m의 천을 살 수 있는 공급표를 받고 있다. 그리고 때때로 양복점에서 지은 옷을 살 수 있다(안드레이 란코프, 1991). 그렇다면 북한에서도 기성복에 의한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옷감을 배급받는 경우도 많으므로 남한처럼 일반화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반면 북한의 두드러진 특징은 8.3인민 소비품에서 발견된다.

여만철씨 부인 이금옥씨는 물자가 귀한 북한에서 해져 입지 못할 어른 옷은 줄여서 어린이 옷으로 만든다든지, 재활용품을 만들어 생산, 판매하는 8.3인민 소비품이라는 것이 있다고 증언한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북한은 남한에 비해 심각한 물자부족 때문에 기성복의 활용이 어렵고 남한에 비해 가정내 수선이 보다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건조기나 세탁기등은 생각할 수도 없는 실정이지만, 1972년의 사회주의 헌법 제62조에서 '국가는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여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면서 세탁소, 옷수리소와 같은 편의봉사시설 사업의 개선강화가 시도되었다(한국여성개발원, 1992). 그러나 세탁소나 옷수리소 같은 장소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사정을 파악할수는 없다. 단지 옷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남한과 같은 세탁소나 수선집의 활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3) 주거에 관한 일의 대체

주거에 관한 가사노동의 대체는 after service, 옥내 청소 서어비스, 청소부, 청소기, 실내장식 서비스 등(문숙재·채옥희, 1990)이 남한에서 이루어지는 주거에 관한 가사노동의 사회화이다.

북한에서는 주택이 개인소유가 아닌 국가소유 또는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의 소유로서 관리도 국가와 공공단체가 하게 되므로 주택의 실내장식이나 인테리어등에는 신경을 쓰지 않게된다. 또한 결혼을 하거나 타지방으로 전근이 되었어도 주택배정이 안되면 가족과 헤어져 공장 합숙소에 들어가 주택이 배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고(길성철, 1984), 언제 이주명령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기 때문에 집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으므로 주거에 관한 서비스 관련 사회화를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이라고 해도 애착이 전혀 없어 비가 새도 수리를 하지 않으며, 수리공사도 국가에서 단체로 할 때까지 기다린다. 또한 개인이 건축자재나 물자를 손쉽게 살 수도 없으므로 집을 잘 가꾸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대신 공동 주택이나 협동 농장내에서 아니면 공장의 합숙소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동 청소등의 협업만이 있을 뿐이다.

4) 보육·교육에 관한 일의 대체

보육·교육에 관한 일의 대체로는 유아원, 유치원, 보모, 학교, 아동 상담소, 유제품, 이유식 등(문숙재·채옥희, 1990)을 들 수 있다. 남한에서는 조기 교육 붐 및 주부의 취업증가로 유아원과 유치원 활용이 높아지며 그외 사설학원이나 놀이방의 이용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북한은 1976년 4월 29일에 공포된 「어린이 교육요양법」에 따라 「세상에 태어난 때로부터 학교에가기 전까지의 어린이를 탁아소, 유치원, 육아원, 애육원 등에서 키우도록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있어(서동익, 1991), 가사노동 영역중 가장 두드러진 사회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5) 보호·간호에 관한 일의 대체

보호·간호에 관한 일의 대체로는 파출간호부, 병원, 양로원, 경로당, 건강진단소 등(문숙재·채옥희, 1990)이 있다.

북한에서는 부양해줄 자식이 없거나 연고자가 없는 노인들은 북한 노동법 8장 78조-노동력을 잃어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은 양로원과 양생원에 무료로 수용된다-에 의해 양로원에서 생활하게 된다. 1987년 월남한 허문화씨의 증언에 의하면 늙어서는 좀 간섭받지 않고 살려고 무연고자도 대부분 양로원 입주를 희망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가내부업반이나 작업반에도 나가지 못할 만큼 늙어버린 65세 이상의 노인들은 아들에 집에서 손자 손녀나 봐주고, 한가할 때는 공원이나 빈 공터에 앉아 소일하는 것이 대부분이다(서동익, 1991).

그러나 남한에서는 고급 유료 양로원이 생겨나기 시작해 영리적인 사회화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적 시책으로 1981년 노인 복지법과 아동 복지법이 제정되어 보급증진, 예방자원, 보완대체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김영숙의, 1991).

6) 가정관리에 관한 일의 대체

가정관리에 관한 일의 대체로는 공동 주택 관리 체계, 자동지불에 따른 가계수지의 기록(문숙재·채

옥희, 1990), 주문판매, 배달서비스(김영숙의, 1991)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남한에서는 가정내 컴퓨터 보유율이 높고, 신용판매가 증가하면서 가정관리에 관한 일의 대체는 확장 추세에 있다. 그러나 주택관리와 관련해서는 남한의 경우 아파트 단지내에서 공동주택관리가 일어날 뿐이지만 북한에서는 모든 건축물이 국가소유 내지는 협동농장이나 공장, 기업소 등 공공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어 남한에 비해 훨씬 많은 량의 사회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북한의 주택은 생활단위인 가정의 보급자리가 아니라 통치체제의 요구에 따라, 주민들에게 집단주의 생활양식을 강화하여 각종 동원과 통제 그리고 상호감시를 보다 쉽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규격화된 생활을 통해서 사고방식마저 규격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길성철, 1984). 그러므로 북한의 주택관리도 당연히 국가와 공공단체가 하게 되므로 주택관리의 사회화가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도시 주택과 공장기업소의 사택은 일정액의 사용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농촌주택의 경우는 협동농장에서 결산분배때는 주택관리비를 공동부담으로 공제 적립하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집이 낡아서 비가 새고 벽이 무너졌다고 해도 입주자의 요구대로 수리 또는 개축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농가의 경우도 협동농장에서 집수리반이 조직되어 수리공사를 해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길성철, 1984).

7) 교체에 관한 일의 대체

교체에 관한 일의 대체에는 레스토랑이나 음식점을 이용한 손님 접대, 축하전보, 연하장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남한에서는 출장요리사의 이용이나 출장부폐등의 등장으로 서비스에 대한 사회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후 하객 접대는 대부분 식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들잔치, 집들이, 회갑연등의 행사도 집 밖에서 치루는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들의 회갑연은 경제적 여유가 없고 공산당의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거의 볼 수 없으며, 60청춘, 90회갑이란 구호를 통해

회갑자체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결혼식의 경우도 도시 상류층의 경우에서만 공공회관이나 국가음식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은 여유가 없어 간단히 집에서 식을 치르고 헤어지거나 집에서 대접을 하고 있다(안계춘, 1989). 따라서 교제와 관련된 가사노동의 사회화는 북한의 경우 일부 소수계층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남북이 통일되어 함께 살게 되었을 경우에 대비하여 남북가정의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행해진 연구이다. 이때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인식될 가정생활 전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이데올로기 차이에 의해 나타난 가사노동 사회화의 실태 차이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우선 남한과 북한 모두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두 체제는 상이한 이데올로기로 인해 서로 다른 가사노동 사회화의 필요성과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법적·제도적으로 완전한 남녀평등을 보장하고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진출 여건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정일은 여전히 여자의 일이라는 전통적 고정관념을 고수한채 여성들의 노동력화를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남한에서는 가정과 사회, 주부역할의 변화 그중에서도 취업주부의 증가, 소득증가, 가사노동의 경감 욕구의 증가 및 편리함의 추구로 인해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북한에서의 가사노동 사회화는 정부 주도하에 정책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사회적·공공적 사회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남한에서는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가사노동의 영리적 사회화가 주를 이루게 된다. 이를 가사노동의 종류에 따라 살펴보면 북한은 식사와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회화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동주거형태로 인한 주택관리의 집단체화·공동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한의 경우는 북한에 비

해 가사노동의 기계화(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등) 및 의복에서의 사회화 수준이 월등히 높아 가사노동의 영리적 사회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결국 가정에서 가사노동의 사회화 상태는 상이한 이데올로기와 이로인한 서로 다른 가사노동 사회화 방식에 따라 서로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바로 두 체제간의 가정생활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남한의 경우는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소득의 증가와 풍요로운 물질, 그리고 편리함의 추구로 인해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왔다. 이는 좀더 편한 것, 좀더 향락적인 것을 지향하며 지나친 경우 사치와 과소비로 이어지고 이는 빈부의 격차를 더욱 심각하게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북한에서는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여성 노동력의 동원 및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을 위해 계획적으로 이용되어 왔고 이는 주민 생활의 통제 및 감시 체제, 부족한 물자를 관리하는 방법으로까지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가사노동의 영리적 사회화가 남한의 대표적인 사회화 방식이라면 북한에서는 가사노동의 사회적·공공적 사회화가 지배적이고 이것은 남북 가정의 가정생활 형태의 이질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통일 후 남북의 이질화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도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물질적 풍요와 이로 인한 문제, 그리고 물질의 절대적인 부족과 이로 인한 문제로 대별되는 남북의 가정생활 문제는 통일후 가사노동 사회화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더욱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일 예로 인터뷰중 남한에 와서 맛있게 먹었던 음식을 물었을 때 '라면(정확한 이름을 몰라 음식의 특성으로 설명)'이라고 대답했던 김만철씨와 '김치밖에 담글 줄 몰라요'라고 고백한 그의 부인 이금옥처럼, 아마도 이들은 남한에서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보다 쉽게 남한 생활에 적응해 갔을 것이다. 즉 라면은 반조리 식품으로 끓이기만 하면 되는 음식이었고, 김치 밖에 담글 줄 모르는 부인의 경우는 시장에서 필요한 것을 사다 먹으면 남한의 가정과 비슷한 식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돈을

갖게 하는 방법과 우리의 생활을 알려주는 방식이 개발된다면 북한 주민들이 보다 쉽게 남한 생활에 적응해 올 수 있을 것이다. 즉 돈이 있어도 배급표와 함께가 아니면 시장에 물건이 있어도 살 수 없었던 체제에서 돈만 있다면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체제가 되므로 이들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우선 제공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업과 정부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다. 다음 이들에게 남한의 가정 생활을 서서히 알려주어야 한다. 이것은 현재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사노동의 사회화 방식을 이용하여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어온 배급제를 이용한 가사노동의 사회화방식을 통해 남한에서 원조가능한 물건과 서비스를 정부의 일률적인 계획하에 일정기간 배급하면서 남한의 가정생활과 유사한 생활방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가능 할 것이다. 북한의 탁아소와 유치원을 통해 새로운 사상과 생활방식을 가르친다거나, 남한에서 많이 이용되는 물건이나 음식을 배급을 통해 접하게 하는 방법등이 실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어떤 물건이나 음식을 얼마큼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그 물건들의 제공을 얼마 동안이나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전문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사노동의 사회화라는 것, 그리고 정부 주도하의 계획적인 가사노동 사회화의 실행은 그 자체가 갖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있다. 즉 가정 단란의 피해라든가, 개성 상실등의 부정적인 면과 여성 자신의 피로함을 덜고 좀 편리하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므로 개인과 개별가정의 개성 존중과 가치 존중이라는 측면 또한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단지 북한의 붕괴로 남북이 하나로 합쳐질 경우 남한과 북한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두 체제의 가정생활이 비슷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나친 정부의 계획적 주도도 견제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광식, 「북한의 실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2) 공산권문제연구소, 「북한의 가정과 부녀자」, 공산권문제연구소, 1972.
- 3) 길성철, 「북한 주민의 생활실태」,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84.
- 4) 김영숙·심미영,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991.
- 5) 김혜경, 가사노동 이론에 관한 연구: 여성해방론에서의 접근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 6) 문숙재, 「가정생산」, 서울: 신광출판사, 1990.
- 7) _____, 북한의 여성과 가정생활, 여성학논집 11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1994.
- 8) _____·채옥희, 「가사노동」, 서울: 신광출판사, 1986.
- 9) 박완서, 북한사람, 북한가정, 북한사회, 「북한, 그 충격의 실상」, 조선일보사, 1991.
- 10) 서동익, 북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일생, 「북한, 그 충격의 실상」, 조선일보사, 1991.
- 11) 안계춘, 「북한주민 생활실태 조사」, 국토통일원, 1989.
- 12) 안드레이 란코프, 「평양의 지붕밑」, 연합통신, 1991.
- 13) 외무부, 「북한방문 보고집」, 1982.
- 14) 윤미량, 「북한의 여성정책」, 한울, 1991.
- 15) 이영희, 이상나라 엘리스, 북한, 1985.8.
- 16) 이태영, 「북한여성」, 실천문화사, 1988.
- 17) _____, 「북한의 여성생활」, 서울: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81.
- 18) 정지영, 가사노동서비스의 사회화와 그에 따른 만족수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19) 조선일보, 1994년 9월 16일 기사.
- 20) 한국여성개발원, 북한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1992.
- 2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북한의 실상」, 고려원, 1986.